

“탄소를 줄여라!”... 자동차 시장 ‘친환경 경쟁’ 대격돌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 15.5만대
전기차 등 전년비 60% 이상 성장
현대 그랜저 1.4만대, 투싼 8419대
E-GMP 적용 기아 ‘EV6’ 이달 인도
쌍용 ‘코란도e-모션’ 출시 준비
한국지엠, 하반기 ‘볼트 EUV’ 출시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기아 신형 스포티지.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제품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경쟁은 물론 라인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국내 친환경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

1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가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친환경차는 15만5333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모두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성장했다.

국내 완성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



현대차 더 뉴 싼타페 하이브리드.

년 동기 대비 38.2% 늘어난 9만6030대, 수입차 브랜드는 162.6% 증가한 6만1300대다. 이는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친환경차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부분도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의 중간 단계 성격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는 현대차·기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 그랜저는 올해 상반기 1만4351대를 판매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투싼도 8419대로 하이브리드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4만3350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이중 하이브리드가 3만4487대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8863대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쏘렌토다. 1만7689대가 판매된 쏘렌토 하이브

리드는 기아 하이브리드 모델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단에서는 K5가 6171대, K8이 5525대 판매됐다.

국내 수입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세에 눈을 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는 올해 상반기 14만7757대를 판매했다. 이중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4만9671대다. 점유율에서는 전체 수입차의 33.6%를 차지한다. 하이브리드는 올해 상반기 3만5703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1만1991대) 대비 197.7%가 증가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1만1302대로, 판매가 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669대)보다 323.5% 증가했고, 점유율도 2.1%에서 7.6%로 증가했다.

◆하반기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기아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EV6’를 이르면 이번달부터 인도를 시작한다. 기아는 EV6의 77.4kWh의 배터리를 장착

한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의 산업부 인증 주행거리가 최대 475km라고 발표했다. 또 지난 16일부터 전국 기아 판매 지점과 대리점에서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부터 중형 SUV 싼타페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사전계약 6일 동안 6150대가 접수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전동화 모델을 출시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최대 427km로 아이오닉 5와 비슷하다. 가격은 9000만원 이하인 8281만원으로 책정, 정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도 전기 SUV인 ‘코란도 e-모션’ (프로젝트명 E100)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는 코란도 e-모션을 오는 10월 유럽 시장에 우선 출시할 방침이다. 추후 국내 출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볼트 EV’ 부분 변경 모델과 볼트 파생 SUV 모델인 ‘볼트 EUV’를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수입차 브랜드도 전기차 공세를 이어간다.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는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하이브리드 모델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올 하반기 국내에 선보인다. ‘기블리’는 특유의 유려한 디자인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마세라티 저변을 넓힌 차종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마세라티의 DNA를 계승하면서도 브랜드 최초의 하이브리드차라는 상징성을 더한 게 특징. 기블리 하이브리드에는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

BMW는 연말에 ‘iX’를 출시한다. BMW iX는 BMW의 신기술을 집약한 순수전기 플래그십 SAV(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이다. 메르세데스-벤츠도 ‘더 뉴 EQA’와 대형 전기 세단 ‘더 뉴 EQS’를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스웨덴 완성차 브랜드 볼보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연말까지 국내 시장에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모델은 ‘폴스타 2’로 이는 지난해 유럽과 중국에 선보인 순수 전기차 모델이다. 차량 충돌 시 배터리에 자동으로 분리되는 안전성이 뛰어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신차들이 출시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SW전문가 수료식 메타버스 진행

가상공간서 아바타 만들어 수료식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거듭난 직원들을 축하하기 위한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현실에서다.

LG전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마친 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수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직원들은 아키텍트 교육 과정과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 교육 과정을 수료했

다. 올 초 심사를 통해 100여명 연구원이 선발됐으며,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함께 운영하는 전문가 교육 과정을 원격으로 받았다. 이번 수료식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처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됐다.

참가자들은 가상 공간은 실제와 같이 만들어진 LG트윈타워와 CMU 캠퍼스에서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 캠퍼스를 둘러보고 행사장에서 수료증을 받았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모비스, 친환경 지재권 1000여건 획득

‘2021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대모비스가 친환경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획득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2100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친환경 분야에서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특허와 친환경 경영 국제인증 등 1000여건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

가능경영 성과를 ‘2021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중장기 친환경 경영 전략과 ESG 경영에 대한 추진 내용을 담았다.

현대모비스는 구동시스템, 제어기, 배터리시스템,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전동화 핵심부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인휠모터, 구동모듈, 수소연료전지셀, 배터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등 미래 전동화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특허를 다수 확보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획득한 전체 글로벌 지식재산권 2100여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양성운 기자

미래서 온 듯 우월한 ‘하차감’ 시선압도



DS 7 크로스백 루브르 에디션

‘루브르 박물관’ 상징적 디자인 요소 100m 전방 사물 감지 위험정도 표시 반자율주행 ‘DS 커넥티드 파일럿’

“저 차 예쁘게 어느 브랜드야?” 프랑스 대표 자동차 그룹 푸조시트로엥(PSA)의 DS오도모빌(이하 DS)은 강렬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른 브랜드에선 볼 수 없는 디자인을 적용해 뛰어난 ‘하차감’도 경험할 수 있다. 하차감은 디자인이나 뛰어난 존재감으로 차에서 내릴 때 주목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시승한 모델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아름다운 디테일을 오마주한 ‘DS 7 크로스백 루브르 에디션’이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에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까지 왕복 약 110km를 주행했다.

DS 7 크로스백 루브르 에디션은 DS만의 정교하고 우아한 스타일링과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전면의 DS 윙스(DS WINGS), 윈도우 스트랩, 루프 바, 그리고 리어램프 몰딩에 유광 볼



DS 7 크로스백 루브르 에디션.

랙을 적용해 더욱 강렬한 존재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레이저 음각 기술로 피라미드를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패턴을 사이드미러 커버에 추가하고 보닛, 운전석 및 조수석 도어, 테일게이트에 루브르 에디션을 상징하는 배지를 적용해 기존 DS 7 크로스백과 차별화했다.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의 20인치 알렉산드리아 알로이 휠을 탑재해 품격 높은 디자인을 완성했다.

실내는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해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 강하다. 차량 시동 버튼은 센터페시아 위에 마름모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창문 열림 버튼은 1열 중앙에 위치했다. 처음 차량을 접하면 누구나 당황할 법 하다.

실내는 DS의 가장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오페라 인스피레이션’을 적용했다.

DS 7 크로스백은 첨단 기술도 대거 탑재했다. 시동을 걸면 빛을 발산하며 회전하는 DS 액티브 LED 비전을 비롯

해 카메라 및 센서가 노면 상태를 분석해 네 바퀴의 댐핑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적외선 카메라가 100m 앞 전방 사물을 감지해 위험 정도에 따라 디지털 계기판에 노란색 또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DS 나이트비전,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포칼·(FOCAL·)의 일렉트라 하이파이 시스템 등 폭넓은 첨단 기술을 탑재해 동급 세그먼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품격을 선사한다. 또 반자율주행 시스템인 ‘DS 커넥티드 파일럿’을 지원한다. 국내 소비자 선호 옵션을 반영, 1열 통풍 및 마사지시트를 더함으로써 상품성도 강화했다.

국내 한정판인 루브르 에디션은 6000만원대로 출시됐다는 점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만 DS 7 크로스백은 다양한 옵션을 탑재하고도 5000만원로 출시돼 패밀리 SUV로 선택하기 부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